

# ‘흥·맛·멋’ 이번지로...황룡강 제2의 변신

농림부 ‘푸른 농촌’ 사업 선정

2020년까지 40억원 투입

수상 레포츠·미락단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등 조성

황룡강이 장성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강변을 따라 펼쳐진 꽃길을 걸으며 여유롭게 주변 풍경을 감상하거나 돛지리를 띄고 앉아 강바람을 느끼려는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짜릿한 수상스포츠를 즐기고 멋진 경관과 먹거리 명소를 둘러보는 재미까지 느껴볼 시간도 멀지 않았다. 장성군이 황룡강을 ‘흥·맛·멋’이 어우러진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에 선정되면서 장성읍 하류 황룡강(용강·백계·상오리) 일대를 사계절 체류형 복합 휴양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

장성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국비 28억원 등 40억원을 들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흥·맛·멋’의 이번지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라면 황룡강은 3년 뒤 ▲강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카누·카약 등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흥’ 이번지 ▲강변 먹거리가 즐비한 ‘미락단지’ 주변으로 황룡강 토종 어종, 관상어 등이 전시되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들어선 ‘멋’ 이번지 ▲다양한 수백식물을 식재하고 경관 프로젝트를 추진해 걷고 싶고 보고싶은 ‘맛’ 이번지로



장성 황룡강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축제장에 조성된 황룡정원. 장성은 황룡강에 스토리를 입히고 지역 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성군 제공>

웃을 갈아입게 된다.

장성군은 현재 추진 중인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황룡강을 명품 생태하천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황룡강(17.4km)을 네 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개발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생태 하천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골자다.

용의 머리 부분에 ‘곳곳의 숨은 보물’이라는 테마로 여의주광장, 세계 초화원, 락

가든, 이야기 정원, 오감놀이터, 생태학습장, 습지원 등 황미르랜드를 조성하고 용의 앞발 부분인 개천 합류부는 ‘우연히 만나는 행운’이라는 테마로 용 형상의 인도교와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 ‘황금알 공원’으로 조성한다.

용의 몸통 부분인 장성대교~문화대교 구간은 ‘몸으로 느끼는 금빛 기운’이라는 콘셉트로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한 정원과 장미터널, 전망대를 설치한다. 취안천 합류부인 용의 뒷발 부분에는 공설운동장을

세우고 있다. 준공 예정 시기는 2020년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을 지키는 누런 용, 즉 황룡이 살던 곳이라는 전설을 품고 있는 황룡강(黃龍江)이 장성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게 장성군 설명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을 통해 황룡강을 장성의 자랑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군 북이도서관

27일 문화가 있는 날

‘가족여행’ 참가자 모집

장성군 북이도서관은 오는 27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북이도서관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북이도서관으로 떠나는 가족여행’은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의 ‘문화가 있는 날, 공공도서관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 초등학생을 둔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다.

‘책 속에서 만나는 씨앗 하나’라는 주제에 따라 가족들이 직접 선정할 책을 함께 읽어 독서의 재미를 느끼고 가족들만의 이



전통 한옥방식으로 지어진 장성군북이도서관 전경. <장성군 제공>

야기를 담은 책을 만들어 보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

께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해 책에 흥미를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1-390-8531.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뮤지컬 돈키호테, 레미제라블, 오즈의 마법사,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의 명곡들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내 대표 뮤지컬 배우를 통해서다.

담양군은 25일 오후 7시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아메리카’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에는 국내 대표적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출연, 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객들에게 친숙한 돈키호테, 레미제라블, 오즈의 마법사,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등을 들려준다.

이번 콘서트는 담양군문화회관 주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남문화관광재단 후원으로 진행된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 화순 복지시설 4곳 희망센터 이전 통합

화순지역 복지시설 4곳이 통합된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지역 4개 복지시설을 화순희망센터로 이전해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화순희망센터는 3층 규모의 구 한전 사옥(998㎡)을 리모델링하고 2층 규모의 별동(330㎡)을 증축한 시설로, 화순 지역자활센터, 화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원봉사센터,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화순군은 다음달 개관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복지시설이 한 곳으로 통합돼 운영되는데 따라 인대로 절감과 복지시설



4개 복지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화순희망센터 전경. <화순군 제공>

간 업무 연계를 비롯, 사회복지 서비스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담양 대나무박물관 낙죽 체험 행사

대나무 겉면에 인두로 글씨와 그림 무늬를 새겨 넣는 낙죽(烙竹)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담양군이 25일 오전 한국대나무박물관 본관에서 진행하는 ‘낙죽체험’을 통해서다.

이번 체험행사는 담양군이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맞아 마련한 것으로, 참가자들이 대나무 열쇠고리와 책갈피에 인두로 그림이나 글씨를 새

겨놓아보는 공예 체험 프로그램이다. 낙죽장인인 이형진(전남무형문화재 제 44호)씨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체험 시간은 25일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다.

담양군 관계자는 “한국대나무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이벤트로 생활 속 친숙한 대나무에 문화를 접목시켰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지난해 열린 캠프에서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 국제청소년교육재단 26~29일 ‘성암 청소년 영어 캠프’

전남지역 중학생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영어 캠프가 열린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담양군 수북면 성암국제수련원에서 ‘제 14회 성암 청소년 국제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청소년지도자 육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원어민교사 40명과 전남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200명이 참가해 진행된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박종철 성암국제수련원장의 특강(국제사회의 이해)

를 듣고 환경 모듬활동(환경 골든벨, 친환경 비누·나무목걸이 만들기, 환경 미니올림픽), 강정 만들기, 자연보호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원어민 교사가 직접 진행하는 각국 문화 소개와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가을철 별자리를 관찰하는 ‘별종별 별빛 축제’도 열린다.

국제청소년교육재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자연 속에서 원어민 선생님들과 생활하면서 국제적 마인드를 키우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

###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170만원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무인텔”

###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친절상담 010-3605-5000